

경희대학교 목련음악회

Programme

멘델스존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중 협주곡

Felix Mendelssohn

Double Concerto for Violin, Piano and Orchestra in D minor

1악장: Allegro, D단조, 4/4박자

2악장: Adagio, A장조, 3/4박자

3악장: Allegro molto, D단조, 4/4박자

Violin 김수빈 Piano 김정원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4th Mov.

4악장: Presto-Allegro assai D장조 4/4박자 변주곡형식

지휘 정명훈

연주 경희 동문 오케스트라

합창 경희 심포닉 콰이어

Soprano 오미선 Mezzo Sop. 이아경

Tenor 하석배 Bass 최중우



연주곡 해설

김미애(기악과 교수)

멘델스존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중 협주곡

Felix Mendelssohn, Double Concerto for Violin, Piano and Orchestra in D minor

멘델스존(1809~1847)은 1830년대와 1840년대 독일 음악계에서 작곡가·지휘자·피아니스트·오르가니스트로 활약한 다재다능한 음악가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 단조』는 멘델스존의 첫 번째 협주곡 작품으로서 아직 소년이었던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작곡된 곡이다(1821~1823). 1악장과 3악장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은 듯 명쾌하고 매우 기교적이지만 2악장은 대조적으로 매우 유려하며 자유로운 형식의 낭만주의 스타일이다.

제1악장: 절도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제1주제와 부드러우며 서정성이 넘치는 제2주제가 대조를 이룬다. 매우 화려하고 기교적인 면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의 감성적인 면은 대조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각기 부각된다.

제2악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주요 주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개된다. 피아노에서 펼쳐지는 스케일과 분산화음 진행 위에 연주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의 긴 호흡이 특징이다.

제3악장: 매우 높은 기교가 돋보이는 생기발랄한 악장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불꽃 튀는 연주는 감상자에게 음악적 기교를 만끽하게 하여 끝 악장으로서 만족감과 시원함을 선사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4th Mov.

베토벤(1770~1827)이 20대부터 시작하여 생애의 말년을 바라보는 시기까지에 걸쳐 작곡한 『제9번 교향곡』은 음악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베토벤의 교향곡적 역량을 보여준다.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은 튼튼한 뒷받침이 되면서 벽찬 감동의 제4악장으로 향한다. 제3악장에 이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제4악장의 '환희의 송가'에서 받게 되는 큰 감동은 이 곡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했다.

제4악장: 이 악장에서는 네 사람의 독창자와 대합창단이 함께 실러의 '환희의 송가'를 노래한다. 관현악에 의한 기괴한 소음으로 시작되어 1, 2, 3악장의 선율이 회상된다. 이어 목관에서 합창의 모티브가 나타나고 드디어 저음 현악기에서 환희의 선율이 시작되어 고조된다. 다시 소음이 나타나지만 "오 벗들이여 이런 음들이 아니라, 좀 더 평안하고 기쁨에 넘친 노래를 함께 부르지 않겠는가!"라는 바리톤 레치타티브에 의해 분위기는 압도되고, 이어 바리톤 독창은 '환희의 송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기쁨의 노래는 혼성3부 합창·혼성4중창·혼성4부 합창 등으로 이어진다. 변주를 거듭하면서 솔리스트와 합창은 갖가지 조합으로 노래하며 환희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제 드디어 피날레다. 빠름과 느낌의 급격한 속도변화 및 박자·조성의 바뀜으로 감정은 절정으로 끓어오른다. 이윽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환희로 가슴이 터져버릴 듯 매우 빠른 속도(prestissimo)로 힘차게 맺는다.

프로필

지휘/정명훈

세계적인 지휘자로 한국을 대표해 온 음악가 정명훈은 동양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정상급의 오페라단 상임지휘자를 지내는 등 해외에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쳐왔다. 4세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 3년 만에 서울시향과 협연을 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남달랐던 그는 9세 때 미국으로 유학한 이후 뉴욕타임스 주최 WQXR 피아노 콩쿠르 1위 입상을 필두로, 쇼팽 콩쿠르, 뮌헨 국제 음악 콩쿠르,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입상하고 챔버 뮤직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지휘자로 변신을 시도한 그는 78년 LA 필의 부지휘자를 시작으로 베를린 필, 뮌헨 필, 암스테르담 필, 런던 필, 파리 오케스트라의 객원지휘자,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탈리아 피렌체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지휘자에 이르기까지 지휘자로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89년에는 프랑스의 자랑이자 세계 정상급의 오페라단인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단 음악총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됨으로써 세계 정상급의 오페라단을 지휘하게 된 첫 번째 한국인으로 기록됐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향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국내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김수빈

미국의 빌보드 클래식 차트 9위에 오르며 주목받은 데뷔 앨범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 등에서 보이는 폭발적인 연주력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은 커티스 음악원과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졸업했다. 1996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헨릭 셰링 재단 커리어상(1996),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1998)을 수상하기도 한 김수빈은 현재 뉴욕 주립대학 스톤브룩(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brook)과 바드 칼리지(Bard College)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한편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의 인터내셔널 스칼라(International Scholar)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김정원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특별출연하여 라스트신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김정원은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꼽힌다. 오스트리아의 빈 국립대학 음악대학과 프랑스 파리 고등 국립음악원을 졸업했으며 뵘도르퍼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1997), 동아 음악 콩쿠르 우승(1993), 엘레나 롬브로 슈테파노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1992)을 하기도 했다. 빈 심포니, 체코 필하모닉,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론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가 그를 협연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소프라노/오미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과 이탈리아 베스카라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오미선은 아트리 국제 콩쿠르, 조반지 탈렌티 국제 콩쿠르에 입상(1998)했으며, 수비아꼬 무지카 콘템포라네아 콩쿠르 입상(1999), 이탈리아 빈센초 벨리니 콩쿠르, 오스트리아 페르쉴로 탈리아버니 콩쿠르 입상(2002)에 빛나기도 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메조 소프라노/이아경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이탈리아 잔 바티스타 비요띠 고등음악원을 졸업한 메조소프라노 이아경은 스피로스 아르지리스 국제 콩쿠르, 알카모 국제 콩쿠르, 벨루띠 국제 콩쿠르, 비요띠 발세시아 콩쿠르, 빈첸초 벨리니 국제 콩쿠르 우승(2003),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 콩쿠르 우승(2004) 경력을 가지고 있다.



테너/하석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테너 하석배는 베르디 국제 콩쿠르, 비요띠 국제 콩쿠르, 파르마 국제 콩쿠르, 비나스 국제 콩쿠르, 빌바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유럽 연합방송이 주최한 '세계 20인의 음악가'에 선정(2000)되기도 했다. 또한 이탈리아 밀라노 시가 주최한 '올해의 테너상'을 수상(2002)하기도 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바리톤/최종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과 제노바 왕립음악아카데미를 졸업한 바리톤 최종우는 안젤리카 카타리니 콩쿠르와 자코모 라우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비요띠 발세시아 국제 콩쿠르 준우승, 최우수 베르디 가수상 수상, 베르디-부세토 국제 콩쿠르 준우승을 했다. 특히 베르디-파르마 국제 콩쿠르에서는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우승을 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한세대학교에서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주/경희 동문 오케스트라

합창/경희 심포닉 콰이어